

기술과학 분야 가장 높은 신장세

출판문화협회가 집계한 1992년 납본통계

지난해에 발행된 신간도서는 총 2만4783종에 1억3675만2198부로 집계됐는데, 컴퓨터 등의 보급과 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분야와 기술과학분야의 도서들이 높은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문화부 납본도서를 기준으로 출판통계를 집계한 결과로 밝혀졌다. 최근 출협이 발표한 '1992년 신간도서 발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간된 역사분야도서는 953종으로 91년 647종보다 47.2% 증가했으며, 기술과학도서는 2948종이 발행돼 91년 2207종에 비해 33.5% 증가했다.

그러나 총류나 사회과학분야의 신간도서발행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년에 303종이 발간된 총류는 지난해에 232종이 발간되는 것에 그쳐 23.4%나 감소했으며, 사회과학도서는 91년 3276종보다 12.2% 감소한 2874종에 불과했다. 이 밖에 각 분야별 발행종수를 보면(괄호안은 91년대비 성장율) ▲ 철학 608종(7.6%) ▲ 종교 2044종(6.4%) ▲ 순수과학 328종(6.8% 감소) ▲ 예술 1130종(1.5%) ▲ 어학 938종(9.2% 감소) ▲ 문학 4654종(6.4%) ▲ 학습참고 3925종(4.2%) ▲ 아동 4149종(29.1%) 등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91년에 발행된 2만2769종의 신간도서에 비해 8.8%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발행된 각 도서의 발행부수는 총 1억3675만2198부로 91년 1억3461만6495부보다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발행부수가 발행종수에 비해 크게 신장하지 못한 것

1992년 신간 도서발행량 및 평균부수·가격

(단위: 종·부·원)

구분 분야	신간발행종수(종)		전년비 성장율(%)	신간발행부수(부)		전년비 성장율(%)	평균발행부수		평균가격		평균가격 1면당
	1992	1991		1992	1991		1992	1991	1992	1991	
총류	232	303	▲23.4	752,153	3,269,185	▲76.9	3,242	19,789	13,378	10,783	34.3
철학	608	565	7.6	2,874,358	1,354,710	112.1	4,727	2,397	5,939	5,702	21.5
종교	2,044	1,921	6.4	4,806,105	4,855,630	▲1.0	2,351	2,527	5,483	5,029	20.9
사회과학	2,874	3,276	▲12.2	4,661,579	5,997,798	▲22.2	1,621	1,830	10,110	8,901	23.3
순수과학	328	352	▲6.8	537,000	659,350	▲18.5	1,637	1,873	9,758	7,480	27.4
기술과학	2,948	2,207	33.5	4,586,391	2,647,623	73.2	1,555	1,199	11,148	9,873	30.5
예술	1,130	1,113	1.5	2,619,775	3,100,590	▲15.5	2,318	2,785	10,904	13,882	51.1
어학	938	1,034	▲9.2	2,033,130	3,861,129	▲47.3	2,167	3,734	9,036	9,064	29.0
문학	4,654	4,373	6.4	10,810,393	9,437,935	14.5	2,322	2,158	4,307	4,591	15.3
역사	953	647	47.2	2,432,341	1,272,117	91.2	2,552	1,966	13,263	10,764	41.3
학습참고	3,925	3,765	4.2	88,590,467	86,652,528	2.2	22,570	23,015	4,663	4,749	32.3
아동	4,149	3,213	29.1	12,048,506	11,507,900	4.6	2,903	3,581	5,637	5,498	56.9
계	24,783	22,769	8.8	136,752,198	134,616,495	1.5	5,517	5,912	7,191	6,901	27.9

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출판물이 각 출판사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못한 이유로 풀이될 수 있다. 각 분야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철학이 287만4358부(112.1%)로 가장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243만2341부(91.2%)가 발행된 역사와 458만6391부(73.2%)가 발행된 기술과학도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밖에 발행된 신간도서를 부수별로 살펴보면 ▲ 문학 1081만393부(14.5%) ▲ 학습참고 8859만467부(2.2%) ▲ 아동 1204만8506부(4.6%) 등이 증가 성장율을 보인 반면 ▲ 총류 75만 2153부(76.9% 감소) ▲ 어학 203만3130부(47.3% 감소) ▲ 사회과학 466만1579부(22.2% 감소) ▲ 순수과학 53만7천부(18.5% 감

소) ▲ 예술 261만9775부(15.5% 감소) ▲ 종교 480만6105부(1% 감소) 등은 91년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학습참고서류가 가장 많은 부수가 발행된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출판시장이 중고생들의 학습참고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총발행종수와 총발행부수를 대비한 평균발행부수에서도 나타나 있다. 평균발행부수는 곧 각 도서의 초판발행부수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참고서류가 2만2570부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철학(4727부), 총류(3242부)만이 3천부 이상을 출판하고 나머지 분야의 도서는 이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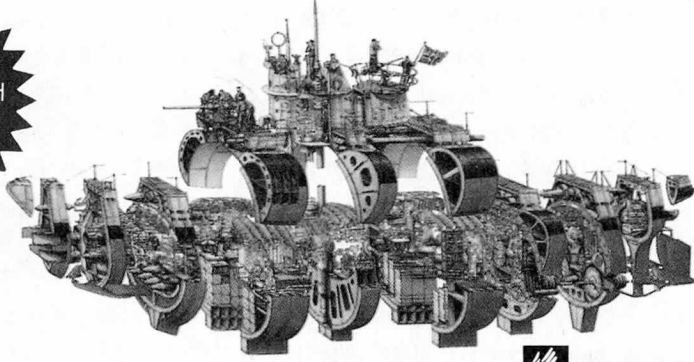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사회과학분야의 퇴조현상이 사회과학도서발행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분야 평균 발행부수는 1621부로 전체평균발행부수 5517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각 도서별 평균가격을 보면 91년 6901원에 비해 290원이 오른 7191원으로, 여타 물가보다 인상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을 분야별로 보면 총류가 1만3378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역사(1만3263원) 기술과학(1만1148원)의 순이며 문학(4307원) 학습참고(4663원)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수기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림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동시 출판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탱크, 점보 제트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지금까지 걸 모습만 보아 왔던 거대한 구조물 18가지를 가로 세로로 세밀하게 잘라, 그 내부의 구조며 명칭을 아주 자세히 보여 주는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건축·미술의 전문가까지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뛰어난 가족형 그림책 「크로스 섹션」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울컬러·양장본/ 책크기 27cm×36cm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